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아르헨티나

I. 일반개황

면적	2,737천 Km ²	GDP	2,540억 달러(2007년)
인구	39.4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6,446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3.10

- 아르헨티나는 총인구 3천 9백만명 중 약 95%가 유럽계 이민 후손들로 구성된 백인 국가이며, 세계 8위의 국토면적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의 광활한 초지대를 바탕으로 농축산업이 발달해 있는 농업강국이며, 원유, 천연가스는 물론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한 자원부국임.
-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 이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IMF와의 관계 단절과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지연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8.8	9.0	9.2	8.5	8.7
재정수지 / GDP	0.5	2.6	1.8	1.8	1.2
소비자물가상승률	13.4	4.4	9.6	10.9	8.8

자료 : IFS, EIU

□ 2003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세 회복

- 2001년 12월 외채에 대한 디폴트 선언과 2002년 1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경제시스템이 붕괴되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으나, 2003년 이후 수출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로 반전됨.
- 최근 수년간의 고도성장은 경제위기로 일시 위축되었던 생산설비가동물의 증대와 고환율 유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대에 따른 결과임.
- 2007년 들어서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호조에 힘입어 8.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도 미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아시아시장 기반 및 주요 수출품인 1차산품의 가격상승을 바탕으로 5%대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세 지속

-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페소화 가치 안정, 정부의 생필품 가격통제, 공공요금 동결 그리고 수출세 부과를 통한 국내 물품공급 확대 등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되찾음.

- 그러나 2005년부터 경기회복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비 증가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며 8.8~10.9% 내외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지속함.
-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장을 왜곡하여 오히려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2008년에도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12%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 재정수지 흑자 유지

- 재정수지는 금융거래세와 주요 수출상품인 1차산품에 대한 수출세 등 한시특별세 신설과 공공부채 디폴트 선언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축소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 흑자로 반전하였음.
-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스왑에 성공하여 정부의 공공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완화되었고, 수출호조로 인해 수출세 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 감소 및 정부지출의 증가로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1차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수입의존 경제로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인 174억 달러(2007년, 총수출 559억 달러)에 불과함.
- 농축산업, 석유/천연가스업 등 1차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취약함.

□ 정부의 시장개입 경제정책 지속

- 전 키르츠네르 정부는 “국가 자본주의(national capitalism)”를 주창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정책을 지속하였으며, 신임 크리스티나 정부 또한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수할 전망이다.

- *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여 고환율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로 가격통제정책을 취하는 등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 왜곡이 우려되는 상황임.

□ 부존자원 풍부

-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과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도 풍부하여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큼.

□ 인적자원 우수

- 인구의 97%가 유럽계 백인인 국가로 국민들의 평균 교육연수가 높으며, 문맹률도 선진국 수준인 2.8%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성인 문맹률(2.8%), 초-중 대학교 및 대학원의 평균 취학률(89.7%) 등 교육수준과 평균수명(74.8세), 국민소득 수준을 등을 반영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7년 인적개발지수가 세계 38위(한국 26위)로 중남미 최고수준임.

□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실패 위험 높음

- 기초생활품에 대해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들과 가격동결 및 가격인하 계약을 체결하고, Repsol-YPF 및 Total 기업 등과 같은 석유회사에게는 가격인상을 제한시키는 등 가격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물가동결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제품가격 인상 억제정책으로 이익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급 부족현상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개선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은 바 크며, 국내외 민간기업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마찰로 인해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부진한 상황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8,140	3,213	5,102	7,691	7,210
경 상 수 지 / G D P	6.3	2.1	3.1	3.8	3.1
상 품 수 지	16,805	13,265	13,087	13,872	13,340
수 출	29,939	34,576	40,387	46,456	55,933
수 입	13,134	21,311	27,300	32,585	42,593
외 환 보 유 액	13,145	18,008	22,742	30,421	44,175
총 외 채 잔 액	166,086	169,247	133,000	122,200	131,6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128.1	110.5	72.5	57.0	51.8
D. S. R.	37.8	29.2	20.6	31.6	17.0

자료 : IFS, EIU

□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전망

- 정부의 인위적 폐소화 환율인상과 국제원자재 및 1차산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회복으로 인해 수입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07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함.

* 2007년에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128억 달러와 78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음.

- 향후 2007년 농산물 수확 감소 및 아르헨티나 1차 산품 수요의 감소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수출증가세가 둔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으로 수입증가도 예상되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기업과의 분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부진

- 극심한 경기침체와 폐소화 가치 폭락 등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FDI 유입액이 2000년 104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7

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

- 2004년 이후 경제성장세 회복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50억 달러 내외의 FDI가 유입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상태임.
- * 아르헨티나 정부와 외국계 기업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크리스티나 신정부는 전력, 원자력 등 국가기간산업 및 과학기술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향후 FDI 유입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 이후 외채규모 감소

- 2005년 약 800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75%를 삭감하고 신규채권으로 교환하는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을 계기로 총 외채잔액과 GDP대비 총외채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
- * 총외채 : 1,660억 달러(2004년) → 1,316억 달러(2007년)
- * 총외채/GDP : 110.5%(2004년) → 51.8%(2007년)

□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디폴트 선언 이후 채무상환 중단과 수출 호조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4년 4월 조기대선에서 키르츠네르 후보 대통령 당선

- 2001년 12월 경제위기 발생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사회불안이 심화되

자 2004년 4월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으며, 신예 키르츠네르 후보가 메넴 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 * 중도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는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임기기간동안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여 정치기반을 다짐.

□ 2005년 10월 의회 중간선거 여당 승리

- 상원 의석의 3분의 1(72석중 24석)과 하원의 약 절반(총 257석 중 127석)을 선출하는 2005년 10월 의회 중간선거가 집권 페론당의 승리로 끝났음.
- 본 선거에서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부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의 부에 노스아이레스 주(州) 상원의원 당선과 계파 후보들의 선전(페론당 하원 135석 중 108석)으로 정국 장악력을 높였음.

□ 2007년 10월 대선에서 크리스타나 후보 대통령 당선

- 2007년 10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상원의원인 크리스타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 크리스티나 신정부는 과거 여성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인기영합주의로 치우치기 보다는 전 키르츠네르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기본 방향을 고수하면서, 해외자본유치, 사회문제 해결 등에 더욱 힘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불안 현상 지속

-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및 실업자시위단(소위 picketero)들의 정부보조금 인상 투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요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음.
- 실업자 시위단에 대해 유화정책에서 강경진압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와 시위단간 긴장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서 브라질 등 인접국과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미 좌파주의자인 차베스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가 Mercosur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는 한편, 2005년 아르헨티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키르츠네르 정부를 지원하면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강화가 이루어졌음.
- 전 키르츠네르 정부가 국내정책에 비해 대외정책을 다소 비중을 적게 둔 데 반해 새로 출범한 크리스티나 정부는 취임 이후 스페인, 독일, 칠레, 멕시코, 미국 등의 국가를 순방하는 등 외교관계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음.

□ IMF의 차관 조기상환, 그러나 구조조정 이행 등 협력관계는 단절

- 전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2006년 초 IMF 차관잔액 98억 달러 전액을 조기 상환하여 구조조정 이행 등 IMF와의 협력관계는 단절되었으며, 파리클럽과는 여전히 채무재조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민간채권자와의 채무재조정 성공 이후 신규채권 신용등급 소폭 상승

- 2005년 6월 1일 S&P는 채무스왑으로 새로 발행된 아르헨티나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sovereign bond)에 대해 B-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2006년 3월 23일 B로 한 등급 상향조정한 데 이어 10월 2일 B+로 다시 한 등급 상향조정함.
- 2005년 6월 29일 무디스(Moody's)도 아르헨티나의 신규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에 대해 B3 등급을 부여함.
- 그러나 Fitch는 아직도 채무의 상당 부분이 디폴트 상태임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디폴트(Restricted Default)로 평가하고 있음.

* S&P : CC (01.10) → SD (01.11) → B- (05.6) → B (06.3) → B+ (06.10)

* Moody's : Ca (01.10) → Caa1 (03.8) → B3 (05.6)

* Fitch : C (01.11) → DDD(01.12) → RD (05.12)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o US EXIM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o ECGD : 개별심사
- o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민간채권자와의 채무재조정 실시

- 2005년 6월 민간 채권자 76%가 참여한 채무스왑을 실시하여 대상채무 1,050억 달러 중 약 800억 달러에 대해 75%를 삭감하고 신규채권으로 교환하였음.
- 채무스왑 미참여 민간채권자와의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계는 본 채무재조정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채무재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채권단 및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지연

- 아르헨티나 정부가 구조조정 등 IMF와의 협력관계를 단절함에 따라 채무재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채권단 및 파리클럽 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 협상은 더욱 지체되고 있음.
- *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은 통상 IMF와의 협약 체결 이후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루어지나, 아르헨티나의 IMF와의 협력관계 단절로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협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 1,221백만 달러(2007년)

- 수출 489백만 달러
- 수입 732백만 달러

□ 해외직접투자현황 : 330건 150.2백만 달러(2007년 12월)

V. 종합 의견

- 아르헨티나 경제는 민간 채권자와의 채무재조정 실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호조, 저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 등으로 5년 연속 8%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되었으나, 2008년에는 인플레이 우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경제성장 위축 전망에도 불구하고, 페르난데스 신정부 출범 이후 각종 투자 유치 정책이 발표되고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외환보유액 증가, 대외채무 감소 등 대외지급능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문의 : 전문연구원 이은경 (☎ 3779-6676)

E-mail : twoek1982@koreaexim.go.kr